

창조적 글쓰기를 위한 발상을 즐기자

박성창*

최근에 서점에 가본 사람이라면 글쓰기와 관련된 서적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글쓰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러한 글쓰기 입문서들은 흔히 짐작하듯이 단순히 논술을 겨냥한 입시용이나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훈련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발매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한 글쓰기 안내서의 경우 책의 구매층을 조사해본 결과 주 독자층이 원래 생각했던 대입논술을 앞둔 고등학생이 아니라, 보고서나 기획서를 써내야 하는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의 회사원들이라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기술’에 ‘말하기의 기술’까지 함께 생각해본다면 말과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비단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말과 글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해진 표현문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 깔려 있다. 실제로 블로그, 미니홈피, 댓글 게시판에 수시로 올라오는 글들은 이러한 강렬한 자기표현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자기표현의 욕구는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표현의 양상들을 검토해보면 표현의 욕구 때문에 파잉 상태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문학과 교수

빠진 언어로 인해 사실은 소통의 기능에 장애를 불러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대학교육에서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일방적인 자기표현의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이해와 비판 능력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문화를 함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글쓰기 입문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글쓰기의 ‘기술’이나 ‘전략’ 또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글쓰기의 과정을 쓰기 전(前), 쓰기, 쓰기 후(後)로 나눌 수 있다면 대부분의 글쓰기 입문서들이 공들여 다루고 있는 것은 쓰기의 과정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강조하다보니 정작 구체적인 글쓰기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과정, 즉 발상의 단계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빠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쓰면서 가장 처음에 행하는 일은 바로 발상의 과정이다. 발상의 단계는 구체적인 글쓰기를 펼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밑그림에 해당된다. 이 발상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세밀한 개요와 구체적인 구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글이 마치 섬광과도 같은 순간적인 발상을 통해 똑딱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발상은 천재적인 영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물론 글쓰기를 위한 발상이나 창조적 아이디어가 글쓰기의 구체적인 과정과는 달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의 대상이 되거나 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기술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입문서에 이러한 발상의 단계가 아예 빠져 있거나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을 다듬고 표현하는 과정에도 개인의 습관이 들어가듯이 생각을 다듬는 데에도 개인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발상은 뜬뜬하고 공들일 필요가 있는 작업이며 평소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작업이다. 글이 삶의 표현이라면 발상은 삶의 매순간에 벌어지는 사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의 상념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자세에서 생겨난다. 발상

은 삶과 글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자세히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고 한다면 발상의 단계는 결코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여도 된다면 나는 글을 쓰는 과정보다 글이 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즐기까지 하는 편이다.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글을 위한 발상을 찾아내고 머릿속으로 한 편의 글을 이리저리 굴러보는 것을 좋아한다. 뜬금없이 밥이 맛을 내듯이 글을 쓰기 전에 뜬금없이만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과 형상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즐기면서 여유롭게 글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발상의 단계에서 퇴고의 단계까지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경우, 글은 형식적이 되기 쉬우며 개인적인 숨결이 들어가 있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글쓰기교실에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글을 다듬고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하기보다는 글을 통해 표현할 생각이나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 생겨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학생들의 고민을 정리해보면 대부분 글을 시작하기 어렵다거나, 글을 쓰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거나,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어려움은 글을 너무 빠르고 또 쉽게 쓰는 정반대의 경우와 함께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발상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자유롭게 사유함으로써 글쓰기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의 단계는 글쓰기 입문서를 통해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나 자세의 차원에 속한다. 평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사물을 나름대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상은 비롯된다. 지루하기 십상인 독서나 반복적인 일

상생활은 사실 창조적 글쓰기가 솟아나오는 샘물과도 같다. 일상의 평범하고 명백한 생활에 깃들여 있는 맛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착상이 시작된다.

구성적 아이디어의 단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 사물이나 주장의 유사성과 차이를 찾아내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비교와 대조의 대상을 잘 선정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재능의 몫은 아니다. 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나 감수성을 연마하는 과정이나 이를 언어화하려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다. 김인환 선생이 쓴 『글쓰기의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우리의 예전 시인들은 시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시의 눈을 자안(字眼)이라고 불렀다. 고려시대의 시인 강일용이 백로를 두고 비할벽산요(飛鶴碧山腰), 즉 날아서(飛) 푸른 산(碧山)의 허리(腰)를 가른다(鶴는 시구를 얻었는데, 여기서 가를 할(鶴)자가 바로 이 구절을 시답게 만드는 자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백조가 산의 중턱을 지나 날아가는데 시인은 그때 산의 허리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이를 한 단어에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강일용이 이러한 자안을 얻기 위해 몇 달 동안 천수사 골짜기에 칩거하여 백조를 관찰하였다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다.

위에 소개한 시인 강일용의 일화는 시를 위해 일생을 바친 시인의 극단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창조적 글쓰기를 위한 발상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글에 공을 들이는 만큼 삶에 공을 들여야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다. 글감을 바라보는 눈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머잡는 솜씨는 나날의 생활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게다가 글쓰기가 반드시 느낌과 생각보다 뒤에 오는 것도 아니다.

글을 쓰는 데 공을 들이면 저절로 느낌과 생각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글쓰기는 중요한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 충분히 생각해야 하지만,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은 글

글 쓰기 상상 탐 실 에 서

쓰기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도 되지 않겠는가? 창조적 글쓰기를 위한 발상을 즐기자 